

교회 포커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망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18:1)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주관 충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조광현 편집: 이태복

2004년도 제3차 정기총회

믿음의 승리

(마 15:21-28)

일시: 10월 29일(금), 오후 7시~9시

장소: 충헌교회 본당

강사: 김성관 위임목사

달고 오묘한 그말씀(금요집회) - 전국 복음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임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

제6장. 천국의 의

제7장 천국에서 요구되는 것 (3)

어떤 경우에는 천국이 요구하는 결정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결정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짐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매느리가 사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노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노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마 10:34-37).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모든 가족 관계를 다 끊어버려야 한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그 결정 앞에서 인간관계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때에 비록 인간의 사랑과 가정의 화해전 모든 끈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그 결정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뜻이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마 10:38).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일컬어 '십자가'라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건디가 힘든 어려운 일들을 일컬어 '십자가'라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환경 안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무거운 짐에 불과할 뿐 십자가는 아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짐을 지고 사는 것만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십자가를 질 때에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누 9:23).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참고 행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개인적인 희생을 하는 것일까?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금욕은 자기중심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자기 부인은 죽음 이외의

눈물이 메마른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

금주 금요집회(22일), 피택장로들의 주제발표 '눈물의 사역'

정말 눈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마저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참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극히 적으니 말입니다. 물론 돈과 명예와 건강을 위해서든, 또 우리 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시는지요? 일찍이 타락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고통의 눈물을 쏟아내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리는 듯 합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느냐?"(제 112a).

눈물이 메마른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이번 주 금요집회 시간에, 이달 27일(다음주 수요일)에 임하실 내 본교의 피택장로들을 통해 들려질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말라야 할 눈물이 무엇인지, 또 우리 눈에서 끊임없이 흘러야 할 눈물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모이도록 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로 장림을 준비하며 교회와 이 시대를 위하여 마음을 쏟고 기도했을 피택장로들!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음성이 무척 기대됩니다.

* 2004년도 제5차 학습세례식 - 다음주일 찬양예배 (새벽 8면 참조)

그 무엇도 의미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이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충성함으로써 오는 죽음을 택하느냐 아니나 그리스도께 속한냐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죽음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곧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이다.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완전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기의 생애까지도 바치는 절대적인 자기 항복의 행위이다. 내 생애, 내 의지, 내 포부, 내 욕망과 소망,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또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a).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내 생애에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의 것이다. 내 생애는 생애에 포함된 모든 것들과 함께 그분께 속한 것이다. 이렇듯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며 또 누가 다스리며 통치하며 왕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 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여길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가 없다. 내 삶 속에는 내 자신이든 그리스도이든 오직 한 지배자만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결정을 요구하신다. 현재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결정이 곧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마 10:38). '누구든지 이 물과 떡을 먹고 마실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마 10:38). 장래에 오는 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중에 나타나서 천국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며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 날에 있어서 그의 아들을 사람들 가운데 보내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요구로서 우리를 직면하고 계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과 심판으로 임하기 오래 전에 우리는 장래에 임할 그 천국에 대한 결정을 오늘 여기에서 내릴 수 있다. 장래에 심판관으로 오실 그 분이 사심 가운데 오셔서 하늘나라의 축복과 영생을 지금 우리에게 제공하시기를 주시길 기도하기 때문이다. 장래에 임할 그 세대가 이 세대 안으로 들어왔다. 장래에 있을 그 영생이 오늘 여기에 우리를 앞에 놓여있다.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 가지 뿐이다. '회개하라. 돌이키고 이 복음을 받고 복음에 순종하여 행복하라!' 이것이 천국의 요구이다.

REPENTANCE

“Therefore having overlooked the times of ignorance, God is now declaring to men that all people everywhere should repent.” (Acts 17:30)

In today's wonderful Bible verse, the word “Therefore” refers to God's reason for overlooking the sins committed before the coming of Christ. “Now” means God has His reason for judging the sins committed after the coming of Christ. Now is much different from before. God now formally declares to the human race that there is no excuse or exception for sin. Everyone must repent. As such, repentance is a serious matter that all need to thoroughly comprehend, and a crucial action that all must properly perform.

Repentance is the foundation of a believer's religious experience. All sixty-six books of the Bible support the doctrine of repentance. Eighteen of the Old Testament books specifically address the topic, and thirty-six of its chapters detail its significance. In the New Testament, ten books address the issue, and sixty-five references underscore its importance. The Bible's heavy instruction on repentance implies the conviction of sin, whereas one turns away from it and toward God and His will. God is always wholly right, but sinners are always wholly wrong. Hence, the willingness for sinners to change direction, give-up, and live a new life in Christ all relate to repentance.

Humans repent because of their sin and idolatry. The Bible is very clear that we are not to worship any sort of idol, whether from invisible imaginations of our mind, or from visible materials of the world. Many people think that God is like “gold or silver or stone, an image formed by the art and thought of man”(v. 29). Indeed, every person has a concept of God, but those who make Him out to be someone or something other than which He is are idolaters. Believers need to seek and find the true and living God. The Bible clearly describes who God is, and it clearly tells us how we can relate with Him through Jesus Christ. Accordingly, everyone is personally responsible for forsaking the idols of this world and for finding God through Jesus Christ. Those who do not read the Bible or listen to the preaching of God's servants, yet claim to know that God is as good as gold or some super power created by their own design are sinners. We have to repent from that kind of thinking. We need to change our minds by turning our lives over to Christ. We must repent because “the times of ignorance” are over.

People are still worshipping God the wrong way. They are still holding on to their own manifestations of God, not God's manifestations of Himself. God now declares through the Bible and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that all people everywhere should repent. God is a merciful God, a righteous and loving God. He will forgive your sins, if you repent. Listen to David's psalm, “I acknowledged my sin to You, and my iniquity I did not hide;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 to the Lord’; and You forgave the guilt of my sin”(Ps. 32:5). Moreover, Proverbs 29:13 tells us, “He who conceals his transgressions will not prosper, but he who confesses and forsakes them will find compassion.” Are you hearing this? God is good. God is great!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1 Jn. 1:9). This is the true and living God. This God we should worship.

Zacchaeus was a tax collector for the Romans who had a bad reputation

for extortion. He was a sinner whose life Christ changed. After meeting Jesus, he declared, “Behold, Lord, half of my possessions I will give to the poor, and if I have defrauded anyone of anything, I will give back four times as much”(Lk. 19:8). Here you can see a man whose mind has changed and whose life has turned to Christ. This is true repentance, the throwing away and forsaking of sin and idols. Please do not worship money and other worldly things; never worship or even think that anything belonging to this earth is important. If you know what is important or right, and ignore it, that is sin. God is now looking at everyone who has or has not repented.

John the Baptist and Christ preached the necessity of repentance,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Mt. 3:2; Mt. 4:17). On the day of Pentecost, Peter told the crowd,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Acts 2:38). In Paul's defense before Agrippa, he told the king that he did not prove disobedient to his heavenly vision, “but kept declaring both to those of Damascus first, and also at Jerusalem and then throughout all the region of Judea, and even to the Gentiles, that they should repent and turn to God, performing deeds appropriate to repentance”(Acts 26:20). Repentance is not optional. God says it is now mandatory for salvation.

Real repentance is more than sorrow. Sorrow may lead to repentance, but the sense or feeling of sorrow is not repentance. 2 Corinthians 7:10 tells us, “For the sorrow that i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produces a repentance without regret, leading to salvation, but the sorrow of the world produces death.” Repentance is a change of mind, an actual turning of one's life away from sin and toward God. If you just worry about sin, you are going to die. If you truly repent, you will receive salvation. You cannot stay in sin; you have to turn the 180 degrees necessary to face God.

My dear friends, all humans are wicked, and every intent of the thought of their hearts are evil (see Gn. 6:5). Truly, everyone is sinful. Paul told the Romans, “What then? Are we better than they? Not at all; for we have already charged that both Jews and Greeks are all under sin”(Rom. 3:9). God's Word shows the world to be under sin, so that people will realize that works cannot save only Christ can. Galatians 3:22 says, “But the Scripture has shut up everyone under sin, so that the promise by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This is a key statement. It is why the church must preach repentance. The Gospel is a gospel of repentance. Listen to what Jesus told the Emmaus disciples, “Thus it is written, that the Christ would suffer and rise again from the dead the third day, and that repentance for forgiveness of sins would be proclaimed in His name to all the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Lk. 24:47-48).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e cross leads to faith which results in repentance. Faith without repentance or repentance without faith cannot lead to new life. Now that Christ has died for all sin, God declares that all people must repent. Please repent of your sins in Jesus Christ's name. Amen. 

회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행 17:30)



김성관 목사

한글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오늘의 놀라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 범행된 죄를 하나님께서 허물지 않으시는 이유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제는’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범행된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는 초림 이전과 많이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평계나 구실이 전혀 용납될 수 없다고 정식으로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는 모든 사람이 깊이 이해하고 정확하게 행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와 우상들을 내어버리자

회개는 신자의 신앙적 체험의 기초입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회개의 교리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열여덟 권의 책이 ‘회개’라는 주제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서른여섯 장이 회개의 의미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열한권의 책이 회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예후 다섯 개의 구절이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회개에 관한 성경의 많은 가르침은 죄에 대한 각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항상 완전히 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기꺼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죄의 길을 포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마음은 모두 회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죄와 우상 숭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 결코 설거지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행 17:29b)과 같이 여깁니다.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를 듣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자기들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만들어낸 황금이나 어떤 초능력이나 마한가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가 끝났으니 이제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는데도 그것은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사상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니”(시 32:5). 잠언 29장 13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지는 비록되고 의로우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바로 이 분이 참되시고 살이세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삭개오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관리였는데 자신의 자리를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선언합니다. “~주여 보아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해낸 일이 있으면 사 배나 갚겠나이다”(눅 19:8). 여기에서 우리는 그 마음이 변화되어 그 삶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요 죄와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 절대 섬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옳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과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모두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는 회개의 필요성을 설교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하였으니”(마 3:2; 4:17). 요한은 오직 세례를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행 26:20)하였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의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회개 없으면 구원도 없다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 이상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회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슬픔을 느끼는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는 마음의 변화요 죄로부터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실제적인 방향전환입니다. 죄에 대해서 단순히 걱정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욕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참으로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망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악하며 그 사람의 생각의 모든 계획도 항상 악합니다(창 6:5 참조). 진실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쩌하소 우리는 나노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롬 3:9).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신나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핵심구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 회개를 설교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곧 회개의 복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47-48).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회개로 이어집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나 믿음 없는 회개는 새로운 삶을 열매로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아멘. M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주님의 강림

(살전 4:15-18)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15-18절).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 주어 진 것이다. 주님의 강림이 놀라운 축복으로,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진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진리이기도 하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3).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려분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정한 날이 되면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실 것이다(살전 4:16).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그 날에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들려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신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라고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하셨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초점을 복음에 기울이고 있는가? 주님은 강림하셔서 우리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실 것이다.

문자 그대로, 언급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행 1:11). 그러므로 하늘을 명하니 차다보며 머뭇거리던 제자들처럼 되지 말라. 주님은 하늘로 좇아 영광 중에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세상의 영광을 꿈꾸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에 불과하였다. 왜냐하면 머리 돌 곳조차 없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주님은 신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마 16:27). 창조주의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것도 숨길 수 없다.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갚아주시실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보이실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장차 정한 날이 되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비라는 자들에게’, 곧 십자가를 위하여 살며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히 9:28).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되어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요일 3:2). 우리 신자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눈으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계 1:7).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던 주님은 가난하고 초라한 종의 행세를 입고 오셨으며, 죄인 중의 괴수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못박혀 처참하게 죽으셨다. 그러나 다시 강림하시는 날에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단 2:13). 뿐만 아니라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살후 1:7).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누 21:27).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 25:31). 다시 오실 주님이 앉으실 그 보좌는 두려운 심판의 보좌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후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님의 강림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영광 되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찬송가 289장).

강파기 오실 것이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27).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시는 순간, 우리 신자들은 마치 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것이라고(전 15:51-52).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홀연히 오시는 날에 우리는 자로 발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막 13:35-36).

기대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이 오신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도적같이 이를 것이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홀연히 임할 것이다(살전 5:2-3).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마 24:39,44).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벧후 3:10). 그러나 신자들은 구름 속에 끌어들려서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뵈게 될 것이다. 지금은 괴로운 인생길이다.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운 강림을 사모하며 살라. 주님의 강림에 관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늘 살아 역사하기를 바란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리라. 아멘!

피복장로칼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들뿐입니다”



김연연
(피복장로)

상한 갈대로 꺾지 않으시고 꺾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사랑과 인내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미친한 죄인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예비하여 주시어 사망 중에 천국을 꿈꾸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한 주님의 은총 중에 살아가면서도 어리석고 우매하여 많은 날들을 주의 뜻을 저버리고 때로는 외면하며 살았나이다. 옷 위에 장식으로 붙였다 떼었다하는 액세서리처럼 주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여 교회에서는 주의 백성처럼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영화를 탐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급급하였나이다. 주여, 크신 긍휼을 베푸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며, 주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어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덧입히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감추어주시고 능력 없음을 타치지 않으시며 오히려 주의 일에 청지기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지팡이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아오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었나이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한결을씩 나아가오니, 감사와 겸손과 충성으로 주의 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죄인의 연약함을 아시니 우리 주께 간구드릴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보다도 더 값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을 눈보다도 더 회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의 삶이 모든 백성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구원받도록 예비되어 있는 모든 일에 주의 말씀과 진리를 증거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말씀 속에 사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온 삶을 통하여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여생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었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기에 내겐 무거운 짐 같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증언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숙제로 인해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던 중, 감사하게도 충청교회를 통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의 한 일원으로서 CMTC와 언어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단기선교를 위해 받은 이 교육에서 나는 많은 도전을 받았고 사역자의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든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 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14-15).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 팀이 사역하기 위해 간 곳은 생각보다도 훨씬 오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역지에 도착하기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그곳 거리와 방목한 가장에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분들은 아름다우 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진정 기뻐하며 영접되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딸은 우리를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께 안내해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욱 힘을 얻어 일대일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났는지 잘 몰라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순간순간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적당한 곳에 차를 세워 복음을 전하면 순식간에 복음의 장터가 되어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어떤 학교 사역입니다. 그곳으로 안내해주신 분은 크리스천인 그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서 보니 몇 백 명의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한 언어로 찬양과 율동을 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진지하게 듣던 그들의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기쁨으로 영접되도록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들의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의사소통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직 중의 이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를 그대로 모두에게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해 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저에게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충청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사역했던 팀원들을 사랑합니다.

현영숙(천우교회 사모)

영원한 인도하심

선교를 통해 모든 영광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크신 은혜를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온전히 용서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보잘 것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사역지로 이동하면서 한 짐서 할마니를 만났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흉하게 느껴질 만큼 파리해진 손을 내밀며 다른 손으로는 옷을 움켜쥐 채 울먹이듯 구걸하던 첫 인상.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전도지를 건넸지만 팀 이동 스케줄에 따라 그대로 바빠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예수님은 진짜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만이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라는 말만 던지도 되치고 떠났습니다. 유난히 호의적인 눈동자가 자꾸 마음에 걸렸고 전도지를 끝까지 읽어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돌아가는 길에 다시 만난 할마니는 바로 그 자리에 걸터앉아 전도지를 읽고 계셨습니다. 구걸하던 분주한 모습은 사라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듯 할마니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역 내내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기뻐하던 현지인들의 모습에 취해서, 마치 내가 영혼구원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랫동안 그 영혼들을 홀로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심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의 교만을 다시 보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추하고 바라볼 것 없는 이 죄인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하 아무만지시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선교의 발걸음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전에 나를 향하신 온종의 발걸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나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고전 9:16a).



정하나(청년1부)

단기 선교사 및 현지인 사역자 기도제목

이승미 · 유미나 평신도 단기 선교사

이들은 지난 9월부터 6개월간 단기선교를 떠난 대학부 자매들입니다.

- 1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 2 우리들의 악함을 채우시며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 3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 4 영적 전쟁터에서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도록 하옵소서
- 5 언어를 배우는 것과 현지 생활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사역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아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 지난해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4일(월)-10월 12일(월)	7교구 4지역	장갑남	10월 4일(월)-10월 14일(월)	11교구 7지역	김인술
10월 4일(월)-10월 13일(수)	7교구 2지역	최대환	10월 5일(화)-10월 13일(수)	16교구 3지역	이성범
10월 4일(월)-10월 13일(수)	12교구 2지역	조운수	10월 5일(화)-10월 14일(월)	9교구 7지역	오재일

발치카 · 베갈마 현지인 사역자

이들 부부는 외선부에서 팀장으로 섬기다가 작년 10월경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이들이 맡을 증거하던 가정교회가 어른 30명, 어린이 10명 정도가 모이는 새 생명교회로 성장했습니다.

- 1 새생명 교회를 복음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 2 새생명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 3 새생명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 4 새생명 교회에서 많은 세계교인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들이 영적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 연세사역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11일(월)-10월 19일(화)	11교구 6지역	정영수	10월 12일(화)-10월 20일(수)	8교구 9지역	김용팔
10월 12일(화)-10월 20일(수)	8교구 6지역	최자용	10월 12일(화)-10월 21일(목)	10교구 추가	이현진

하나님 만나러 교회갈래요

♫

우리들은 천국은 어리이지만
고고 고운 마음에 믿을 주소서.
벧세다 들녘에서 보리밭 바친
그 아이 믿을 갖고 살게 하소서. ♫

블록놀이 할 때도 그림 그리 때에도
찬송 부르는 건 재미있어요.
찬송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셔요.
날 보고 박수쳐 주세요.

주일에 유치부에 갈 때
하나님은 먼저 와서 날 기다리고 계셔요.
엄마 아버지한테 혼난 날은
유치부에 가기 싫지만
하나님 만나러 교회갈래요.



권오울(유치부)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탁아부는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동안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아이를 맡아 돌봐주는 봉사부서입니다. 탁아부의 교사들은 아이의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주 동안 믿음의 삶을 사는데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봅니다. 탁아부에 맡길 수 있는 아이의 연령은 0세부터 6세까지이며 현재 100명의 교사들이 총무처, 교무처, 편집처와 실무 1, 2, 3처로 나누어져 일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1층이고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 개인 선생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탁아부가 교회 부서 중 가장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부서이다 보니 봉사하다 보면 민감한 점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낯을 많이 가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 울고, 개인 선생님과 적응이 되어서도 울고, 개인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다시 선생님이 다가가면 잘 적응하지 못하여 또 울어버립니다. 그러다보니 후 개인 선생님이 사정없이 결성한 경우에는 아이까지 말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는 소리, 재미있게 노는 소리가 합창을 하듯 울려 귀가 멍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전도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선생님과 함께 용이로 울음과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면 순순하고 해맑은 어린 생명들이 천국일꾼으로 자라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는 아이들을 등에 업고 어르고 달래다 보면 등이 땀으로 흥건해집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성령충만한 얼굴로 돌봐주고 마귀를 아이를 데려가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탁아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울러 모든 선생님들께도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탁아부 선생님들은 가장 수고로 신령한 예배를 돕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특히 본 교회가 지향하는 5대 목표 중 하나인 '신령한 예배'를 돕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늘 기도하고 준비하여 사교 없이 아이들을 잘 돌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은 또 교사로서의 사명 의식을 가지고 행정업무에 임하며 기도에 전념합니다. 모든 교사가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날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탁아부 선생님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아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낯을 가리는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살피겠습니다. 특히, 성찬예배, 청지기훈련, 특별집회 등을 잘 감당하기 위해 100명의 선생님이 늘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본 교회가 지향하는 신령한 예배를 위해 어린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더불어 탁아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승관(장로, 탁아부장)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 때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읊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정말 세상적인 사람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많은데 항상 저는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입으로만 시인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모든 일에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에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 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우진 (중동1부)

새벽기도를 다시 시작한 후에

기도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 없이 일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 지기 위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대화가 필요하다. 이 대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관계는 서로 동등하여 같은 선상 위에 있다. 내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다.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한 쪽이 전적으로 옳다. 하나님의 미려하신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를 위한 대화이지만 인간의 생각을 주창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군에서 제대하고 있던 학기에 복학하면서 결심했다. 그것은 새벽기도였다. 하루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자고 결심했다. 하숙집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다. 단기선교와 수련회 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벽기도에 나갔다. 매일매일 맑음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루를 살아가 힘을 얻고 사는 의미를 묵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1~2주가 지나자 처음의 뜨거운 마음이 많이 사라지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삶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나의 교만함과 판단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누가 새벽기도 나오니까? 주님, 이 정도면 꽤 괜찮은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자기 있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서도 조네. 주님, 그래도 저는 풀러도 꼭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천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과 판단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내 모습. 주님께서 받으시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삶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나의 죄성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모든 기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했다. 어려운 수학문제 하나를 더 푸는 것도, 어려운 개념 하나를 더 이해하는 것도,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영원하신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영원까지 이어져 주님과의 교제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닿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유재혁 (대학부)

교회탐방 36 사랑부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부는 지난 1988년,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일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만민에게 전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올해로 16주년을 맞는 사랑부는 정신신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부서이며 현재 100여 명의 교사와 90여 명의 학생이 있다. 학생들의 특수성 때문에 일일제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보다 더 많다.

학생들의 이해 속도가 비장애인들보다 느리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이해가 가면 의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때문에 현재 세례를 받은 인원은 80%에 다다른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지만 작년 여름부터는 학생들의 특수성 때문에 사랑부 자체에서 세례교육과 세례가 이루어졌다.

사랑부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는 선생님들로부터 은혜의 강증들을 들어보았다.

정요진 권사(부강) - 많은 성경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복음의 핵심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말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보면 어느 순간 구원의 고백을 하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비장애인들과 달리, 의심 없이 순수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이럴 때는 저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사랑하시겠구나 생각합니다.

김무수 집사(교무처장) - 장애 등급이 일률적이지 않고 여러 등급입니다. 단편적인 언어도 몇 번 말해야 이해하는 학생부터 글을 능숙하게 읽고 쓰는 학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공부를 하는 단계도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복음을 믿으면 의심 없이 주님께 충성한다는 점입니다. 16년 동안 사랑부의 역사와 함께 자라온 학생들은 모든 삶이 주님 중심입니다. 오직 제가 배우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김경순 집사(믿음 2과장) -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사랑부에 들어왔으나 오�히려 제가 사랑부 학생들로부터 믿음의 도전 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소프지가 물을 읊수하 듯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제 삶에 말씀을 떼어 맞추려고 하던 것과 달리 사랑부 학생



들은 자신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믿음 2과'는 글을 아는 학생들과 성경을 스스로 읽는데 매우 놀랄 만큼 성실합니다.

신준성 집사(교육과장) - 사랑부에서 봉사하기 전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부에 와서 봉사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같은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100% 받아들이며 하마 으로 화답합니다. 제게 없는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화해가 많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으로 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정말 임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생각납니다.

이유진 교사(친교과장) - 가끔 이성애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생도 가끔 소리를 지르거나 사람들께 일방적으로 다가가거나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들에게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학생을 혼내버 데려오지만 그러면서 그 때는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 학생이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얻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충성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성도의 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김정민 교사 -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단편적인 것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학생을 만났을 때는 ' 과연 복음을 알 수 있을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가르치면서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집에서도 믿음을 표현하며 교회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십자가를 보여 기뻐하며, 기뻐해야 하고 외치는 데 정말 놀랐습니다. 무슨 의미로 기뻐해야 하고 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주님과 대화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에는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감동하곤 합니다.

지난 주일전야예배 때 사랑부 학생들의 찬양을 들으며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렸 다. 그만큼 사랑부 학생들의 믿음은 절실하고 진실하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는가? 주일 아침이면 사랑부 학생들 직접 데려오시고 사랑부 오임이 마친 후에는 사랑부 학생들 직접 집으로 데려가시는 부모님들이나 보조자들의 수고와 열조 하에 사랑부는 낮은 등급의 장애인부터 높은 등급의 장애인까지 사랑으로 가르치며 돌보고 있다. "목사 교우들 중에 자녀들이 장애인인데 아직 사랑부를 모르고 있다면 사랑부로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부 주일예배는 목자님 지하 1층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편지식)

다음 주일 찬송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다음 주일 찬송 "여러 해 동안 주 떠나"는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이제 스스로 들이켜...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 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시되었다.

이 찬송을 작시, 작곡한 로버트 로우리(Robert Lowry, 1826-1899)박사는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1854년 버크틀 대학을 졸업하고 침례교 목사로 안수받고 여러 곳에서 목회했다. 그는 1875년 버크틀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1875년 뉴유저지주 플레인필드의 파크아베뉴 침례교회에서 세상을 마칠 때까지 24년간 시무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며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과 고마움을 모르고 그 죄를 배반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으니 어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겠는가?"

그러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며 맞아온 아버지를 기억하자. 한 주간 동안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고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찬양원월화)

새·가·족·을·영·합·합·나·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675	윤대원	19	청년1부	김형곤(3)	2689	박은숙	19	청년2부	하충현(1)
2676	김경태	19	청년1부	강경준(4)	2690	현경민	19	고동부	정재준(3)
2677	전장원	19	청년1부	류진희(1)	2691	한지혜	8	청년2부	김명자(12)
2678	최종진	17	소장부	임창순(17)	2692	너명예르렌	19	외신부	윤정훈(1)
2679	김광남	19	청년1부	김윤경(15)	2693	문지은	4	장년2부	최영규(4)
2680	장형욱	1	중동2부		2694	이승자	14	장년3부	
2681	문은서	19	중동2부		2695	김지민	19	청년1부	김경환(6)
2682	김석원	19	중동2부		2696	봉영옥	1	장년3부	손병해(1)
2683	김진현	19	중동2부	이희식(1)	2697	김정애	19	청년2부	박승길(8)
2684	구성옥	11	장년1부	홍하숙(4)	2698	김정현	19	청년1부	
2685	궁명옥	7	장년2부	강종현(8)	2699	김지은	19	대학부	최효정(9)
2686	김수경	19	청년1부		2700	조영진	19	청년1부	김해관(19)
2687	안윤정	5	청년1부	이영희(5)	2701	정철규	19	청년2부	한성민(1)
2688	신재식	19	청년2부						

※ 출석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년 203호 새가족 등록표도 오시기 바랍니다.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LINOIS, U.S.A.